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주)ANC 테크놀로지

www.ancotech.net

‘고객이 원하는 것, 그 이상을 제공한다.’ (주)ANC 테크놀로지에 근무하는 13명의 정예부대가 미팅 때마다 외치는 말이다. 많은 기업들이 저마다 고객만족을 외치지만 진정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기업은 많지 않다. 그래서 시작된 구호는 어느새 ANC의 사훈으로 자리잡았다.

KIST에서 그리드 컴퓨팅 기술을 이전 받으며 초석을 다진 ANC는 그리드미들웨어(enCRUS : Enterprise Computing Resource Utilization Systems)를 개발했다. enCRUS는 컴퓨팅자원을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유틸리티 컴퓨팅(서비스 그리드)의 핵심 기반 기술로, 사용자가 요청한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컴퓨팅 자원을 때에 따라 유효적절하게 배분하여 컴퓨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 소프트웨어이다.

과거 대기업에 재직 중 IMF로 중소기업으로 이직한 후 불확실한 미래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자 창업을 결심 했다는 노시평 대표. 남들이 하지 않고 비전 있는 유망 아이템을 찾고자 했지만 많은 경우의 어려움이 따랐다고. 현 기술이사 김성우 씨와 소주잔을 기울이며 고민 끝에 93년 김성우 이사는 미국 연구소행을 택해 그리드 컴퓨팅 기술 연구에 매달렸고, 노 대표는 국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며 업계 동향

SVI 서울벤처인큐베이터

www.seoulvi.com

을 살폈다. 1년에 한 번 있는 김 이사의 귀국은 미국과 한국의 기술 동향과 마케팅 전략을 회의하는 자리가 됐고 이렇게 축적된 10여 년 이란 시간은 2005년 6월 ANC가 탄생하는데 가장 큰 밑거름이 됐다. “사업 초기 여느 벤처처럼 연구비와 경영자금이 부족해서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때 만난 것이 서울벤처인큐베이터(이하 SVI)입니다. 서울 산업통상진흥재단의 창업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SVI센터장을 만나 사업계획서부터 조언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99년 설립된 SVI는 최초의 순수 민간창업보육센터로 강력한 휴먼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벤처의 요람이다. ANC의 경우처럼 최초 사업계획서부터 각 단계별로 기업에 맞는 교육을 지원하는 SVI는 경영지원프로그램과 시설지원프로그램 등 입주업체가 계약 기간 동안 보육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사업현황의 점검을 반기별로 진행하고 있으며 대표자 인터뷰, 임직원 인터뷰 등을 통해 경영활동을 관찰하거나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한다.

노 대표 역시 사업계획서부터의 창업 지원을 받아온 터라 지난 해 SVI입주는 ANC의 발전에 또 하나의 계기로 작용했다. “SVI와의 인연이 ANC를 만드는 큰 기반이 되었습니다. 현재도

최고 대우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진정한 최고가 되기 위해 연구와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를 입증하듯 ANC는 지난해 매출 15억 원을 자랑하며 올해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매진하고 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ANC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인력이다. ANC의 그리드 미들웨어 기술이 외국에 비해 1.5년 정도 앞서고 있다고 자신하지만 반면 국내 전문 인력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전문적인 인력을 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쉽지 않아 연구와 전문 인재 양성에도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여건 속에서도 노 대표는 미들웨어 그리드 컴퓨팅 개념을 이용해 유틸리티 컴퓨팅 사업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힌다. “유럽, 미국과 아시아는 작업시간이 다릅니다. 아시아에서 작업을 하지 않을 때, 유럽에서 그 공간을 사용하고 다시 유럽의 공간을 아시아에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안정적인 궤도에 올려 최적화 시스템을 갖추고 소위 ‘가져오는 기술이 되파는 마케팅’ 전략을 구사한다는 방침이다. 고객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먼저 알고 준비하는 기업 ANC. “항상 고객의 입장에 서서 고객이 현재 어떤 문제점을 느끼고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 귀 기울여라.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것, 그 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신념과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라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레고 블록을 맞추듯 짜임새 있는 경영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SVI 서울벤처인큐베이터

센터장 정희훈
 매니저 한인배
 설립일자 1999. 11. 1
 입주기업 21개
 주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22-12 마리오타워 8층
 홈페이지 www.seculvi.com
 전화 02-890-0560/1
 팩스 02-890-6655
 주요지원 프로그램
 경영지원프로그램 사업 계획 및 전략의 수립, 경영자원의 조달 및 운영, 창업 상담 및 교육·세미나, 기업 네트워킹 구축
 시설지원프로그램 센터건물, 개별사무실 및 지급 비품, 공동시설(회의실 외), 공동장비(OA기기, 회의기자재 등)

□ ANC 테크놀러지

센터장 노시평
 설립일자 2005년 6월
 자본금 2억 원
 직원수 13명
 주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22-12 마리오타워 8층
 홈페이지 www.ancotech.net
 전화 02-2194-3845
 팩스 02-2194-3995

